



보 도 자 료

2015년 11월 27일(금) 배포시점 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3년의 혁신,
30년의 성장

문의 :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김종영 과 장(☎2110-1280)
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김종우 사무관(☎2110-1281)

제공일: 2015. 11. 27.(금)

「2014년도 방송평가」 결과 공개

－ 153개 방송사업자의 2014년도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－

□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성준)는 11월 27일, 「2014년도 방송평가」 결과를 의결하고, 이를 공개하였다.

○ 「2014년도 방송평가」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, 총 153개 방송사업자 (348개 방송국)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방송평가위원회(위원장 : 김재홍 부위원장)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.

- 방송평가 대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이며, 지상파(티브이, 라디오, 디엠비), 종합유선방송사업자(이하 “SO”) / 위성,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“PP”), 보도PP, 홈쇼핑 등 매체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내용·편성·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.

□ 각 매체별로 평가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,

○ (지상파 티브이) 지상파4사의 경우 한국방송공사(이하 “KBS”)의 KBS1을 제외한 다른 채널은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, 방송 심의규정 준수 등의 점수 상승 영향으로 전체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며, 순위는 KBS1(87.68점→86.59점), 문화방송(이하 “MBC”, 78.99점→82.88점), 서울방송(이하 “SBS”, 79.22점→82.03점), KBS2(79.37점→80.02점) 순이었다.

※ ‘13년도 평가결과는 KBS1, KBS2, SBS, MBC 순

- KBS2는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소폭 향상되었으나 MBC, SBS의 점수 상승으로 인해 순위가 하락하였다.
- 한편, 한국교육방송공사(이하 “EBS”, 90.62점)는 심의규정과 편성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.(93.06점→90.62점)
- **(지역민방)** 10개 지역민방 중 대구티비씨(TBC, 86.74점→89.04점)가 최고점을 받았으며, 그 뒤를 이어 전주제이티비(JTV, 84.84점→87.66점), 제주제이아이비에스(JIBS, 86.06점→87.25점)순이었다.
 - 부산케이엔엔(KNN, 81.21점→85.46점), 울산유비씨(UBC, 81.82점→85.01점), 강원민방(G1, 80.07점→84.32점)은 심의규정 위반 감점 감소 등으로 인해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다.
- **(지상파 라디오)** 지상파 라디오는 에이엠(이하 “AM”)과 에프엠(이하 “FM”) 모두 KBS1, MBC, SBS, KBS2 순이었다.
 - KBS2 FM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, 재난방송 평가 등에서 점수가 하락하여 전년대비 평가 점수가 크게 하락(80.58점→76.89점)하였다.
- **(지상파 DMB TV)** 지상파 계열 디엠비(이하 “DMB”)가 비지상파 계열 DMB에 비해 DMB용 프로그램 편성실적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.
 - 한국DMB(88.64점→87.26점)가 DMB 방송프로그램 편성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.
- **(중편PP)** 중편 평가결과는 제이티비씨(JTBC, 76.39점→86.53점), 티브이조선(TV조선, 77.64점→81.76점), 엠비엔(MBN, 77.14점→80.93점), 채널에이(채널A, 74.25점→79.35점)순이었다.
 - 중편 4사 모두 자체심의, 방송심의 규정 준수,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,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상승하였으나,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평가의 점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※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는 07시~22시까지 편성·방송된 경우에 한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, 종편4사는 심야 또는 새벽에 편성하거나 최소 비율(0.5%)에 미달하여 0점(30점 만점) 부여

- 특히 JTBC는 자체 심의(9점→20.7점),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(46점→76점),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(23.63점→35점), 재난방송(56.88점→65점) 등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.

- (보도PP) 전반적으로 평가점수가 소폭 상승하였고,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와이티엔(YTN, 81.88점→83.89점), 연합뉴스티브이(연합뉴스TV, 78.56점→81.16점)순이었다.

- (MSO)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(이하 “MSO”) 기준 평가 결과는 씨제이헬로비전(CJ헬로비전, 86.61점→86.51점), 티브로드(84.50점→85.48점), 현대에이치씨엔(현대HCN, 85.41점→85.44점), 씨앤앰(83.53점→83.28점), 씨엠비(CMB, 80.89점→82.04점)의 순이었다. 모든 사업자가 전년대비 평가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.

- (위성방송)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무건전성 등에서 점수가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.(87.44점→86.17점)

- (홈쇼핑PP) 씨제이오쇼핑(CJ오쇼핑)이 최고점(87.17점→89.11점)을 받았으며, 그 뒤를 이어 지에스홈쇼핑(GS홈쇼핑, 90.23점→88.36점), 우리홈쇼핑(86.04점→87.47점), 농수산홈쇼핑(84.57점→86.96점), 현대홈쇼핑(89.34점→85.72점), 홈앤쇼핑(82.04점→83.85점)순이었다.

- 현대홈쇼핑은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(10점→0점), 공정거래법 준수(30점→16점) 등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다.

□ 위와 같은 2014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‘정부3.0’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에 게재되며,

-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, 재승인 심사에 평가결과가 일정비율(40%) 반영된다.

-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방송매체(중앙·지역
지상파, 종편, SO/위성, 보도, 홈쇼핑)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
다르므로,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 방송매체 내 비교는 가능하나 다른
방송매체 간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.

붙임 2014년도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표(방통위 홈페이지 공개). 끝.